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부처님이 계신다



강원도 영월군 사자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범흥사는 신라 선덕여왕 12년 자장 스님이 당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흥녕사로 창건했다. 자장 스님은 진신사리의 정확한 위치를 남기지 않았다. 각자 마음으로 찾아야만 한다. 범흥사에 가면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부처님이 계신다.

적멸보궁 3 - 영월 범흥사(法興寺)

“내 차라리 계(戒)를 지키며 하루를 살지언정 계를 깨뜨리고 백년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을사 자장, 신라 조정의 재상 자리를 마다하고 산으로 들어가 정진하던 어느 날,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과일을 물고 날아와 공양하고, 천인(天人)이 다가와 5계를 주는 꿈을 꾀다. 그리고 636년(선덕여왕 5) 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오른다. 청량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부처님 진신사리 100과와 가사 1벌을 받아 돌아온 스님은 모시고 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오대산 상원사, 태백산 정암사, 영축산 통도사, 설악산 봉정암에 모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 영월 사자산에 모신다. 범흥사다.

범흥사에 가면

일주문을 지나 원음루 앞에 서면 불어오는 산바람이 나그네의 고개를 들춘다. 고개를 들어 바람의 뒤를 따라 가면 사자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산인 듯 마당인 듯 높지 않은 봉우리 위로 내려앉은 하늘은 분명 지나왔으나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하늘의 이름을 부르며 하고, 하늘 어딘가로 날아간 시선은 아무런 기억도 찾지 못하고 돌아온다. 그 옛날 자장이란 조사도 저 산과 산위로 내려앉은 하늘을 보았으니, 그리고 그 하늘 속에서 기억할 수 없는 하늘의 이름을 찾았으니, 하늘 어딘가에서 기억할 수 없는 기억을 찾았으니, 조사의 아득한 시절과 지금의 시절이 닮았음을 기억할 수 없는 역경의 기억을 때문



적멸보궁 뒤 사리탑과 자장 스님 토굴

일 것이다.

원음루를 지나면 사자산문을 열었던 정호 스님(826~900)의 부도가 보인다. 작은 언덕을 바라보며 서있는 스님의 부도가 도량의 분명한 어제를 설명한다. 정호 스님은 신라 말의 선승 도윤 스님의 제자이고, 도윤 스님은 중국 선종의 중흥조인 마조도일 선사로부터 선(禪)을 전수받은 스님이다. 825년에 당으로 건너간 도윤 스님은 남전보원 스님으로부터 “내 종의 법인이 동국으로 가는구나!”라는 말을 듣는다. 847년 당에서 돌아온 도윤 스님은 정호 스님에게 선법을 전한다. 정호 스님은 스승인 도윤 스님이 육조로부터 이어진 남전의 법을 이었고 그 법을 자신이 받았으니 자신은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정호 스님은 16년간 선원에서 정진하여 정각을 이룬 후 886년에 사자산 범흥사에 선문을 개창하니 우리나라 구산선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던 사자산문이다. 정호 스님이 산문을 창건한 지 4년 만에 전쟁의 여파로 몰락했던 흥녕선원은 정호 스님이 임박한 지 40년이 지나서야 중흥하게 된다. 구산선문이 번창할 때 2천여 명의 수행자들이 운집하여 수행하던 큰 가람이었다.

조사의 사리를 불들고 있는 것이 부도라면 세월의 사리를 불들고 있는 것이 자연이리라. 부도를 뒤로 하고 오솔길로 접어들면 장송들이 다가온다. 적멸보궁 가는 길이다. 범흥사 적멸보궁은 사자산 연화봉 중턱에 있다. 도량 입구인 원음루에서 약 500m 정도 올라가면 된다. 적멸보궁 뒤에는 자장 스님이 불사리를 봉안하고 수도하던 곳이라 전해지는 토굴과 사리탑이 있다. 하지만 자장 스님이 부처님 진신 사리



범흥사 적멸보궁

를 정확히 어디에 모셨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의 적멸보궁에서 바다를 보이는 연화봉 넘어 어딘가에 모셨다고만 전해올 뿐이다. 자장 스님만이 알고 있다. 사리탑 앞에 서서 연화봉을 바라보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범흥사에 가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디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계시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보고도 볼 수 없는 부처님이 아닌, 눈을 감고 더듬으면 찾아낼 수 있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자장 스님이 진신사리의 정확한 위치를 남기지 않은 것은 꼭 부처님을 만나고 가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각자가 찾아낸 부처님을 만나고 가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범흥사에 가면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부처님이 계신다.

범흥사는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범흥리 사자산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영월 10경의 하나인 범흥사는 신라의 자장율사가 나라의 흥성과 백성의 편안함을 도모하기 위해 643년 선덕여왕 12년, 643년에 연화봉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흥녕사(興寧寺)로 창건했다. 중국 선종의 중흥조인 마조도일 선사로부터 선(禪)을 전수받았던 신라의 선승 도윤 칠감 국사의 제자 정호 절종 스님이 886년 이곳에 선문을 여니 바로 구산선문 중 하나였던 사자산문(獅子山門)이다.

1902년 대원각 스님에 의해 이름을 범흥사로 고치고 중건했다. 1933년 지금의 자리로 적멸보궁을 이전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범흥사 가는길

중앙고속도로 신림IC→신림 삼거리→영월, 주천 방향→무릉 1교→범흥사로 진행하면 된다. 범흥사 진입로 들어서기 전에 만나게 되는 주천(酒泉) 풍경이 볼거리다. 숲이 샘솟는 마을이라는 유래를 지닌 주천은 공순원주막에서 출발한 단종 임금의 유배행렬이 지나간 곳이기도 하다. 특히 해질녘의 풍경이 볼거리다. 주천강에서 범흥사 진입로로 이어지면 약 2km 범흥천이 이어진다. 범흥천은 영월군이 선정한 명소 중의 하나로 20여 곳의 펜션과 캠핑장(야영)이 있다.

영월=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주변보기

▲ '영박2일'

“영월에서 하룻밤 자고 영월에서 이틀간 여행 하자!”

범흥사 '영박2일'은 범흥사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지역문화여행 프로그램으로 영월군이 후원하고 범흥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차담, 108배, 예불, 좌선, 발우공양 만다라만들기 등 범흥사 템플스테이를 체험 하고 난 뒤 호야지리박물관, 패연재도자미술관, 선돌, 선암마을(한반도지형), 장릉(정령포), 별마로천문대 등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의/범흥사 포교국 (033)375-9173

〈사찰〉

▲보덕사 /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110
보덕사는 영월의 주산인 발산(발산)의 서쪽 기슭에 있는 옛 절로, 신라 문무왕 8년(668)에 의상 조사가 지척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뒤, 1457년 노룡사로 개칭되었다 1726년 보덕사로 바뀌었다.

〈가볼 만한 곳〉

▲선암마을(한반도지형) / 영월군 한반도면 웅정리 산180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5호인 한반도 지형(선암마을)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땅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으로 서강변에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 지형 전체를 조망하려면 한반도지형 전망대까지 가야 한다. 한반도지형 전망대 주차장에서 시작되는 왕복 1.6km의 탐방로 끝에 있는데 가족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길이다.

▲무릉리 마애여래좌상 /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산139
주천에서 범흥사로 오다보면 수주면 호야지리 박물관 뒤쪽 마애여래 뒷산 바위 한 면에 음각으로

새겨 놓은 마애불좌상이 있다. 조선시대 서예의 대가이고 정치가인 봉래 양사언이 평창군수 시절 이곳을 자주 찾아와 바위에 ‘요선암’이라 새긴 글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시인 목격의 이상향 무릉도원이 발 아래 있으며 흥녕사에 주석하던 정호 국사가 이곳에 암자를 짓고 기거했다고 전해 온다.



▲별마로천문대 /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10
별과 정상을 뜻하는 순우리말 ‘마루’와 고요할 ‘로’자의 합성어로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이란 뜻의 별마로 천문대는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봉래산 800m 정상에 있다. 국내 시민천문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직경 80cm의 주망원경과 여러 대의 보조망원경이 구비돼 밤하늘의 별자리, 행성, 달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영화 ‘라디오스타’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호야지리박물관 / 수주면 무릉법흥로 303
36년 간 교단에서 지리를 가르친 호야 양재룡 선생이 지리교육의 열정을 담아 2007년 개관한 국내 유일의 제1종 지리 전문테마 박물관이다. 50여 종의 각종 지구본과 희귀자료 600여 점 이상을 전시하고 있다. 특별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숙박〉

-스카이프렌 (033)374-5486
-올리브펜션 (033)374-7789
-솔밭 캠프장 (010)5483-7066
〈식당〉
-풍류관 (033)372-8851~2
곤드레밥, 황태구이, 갈비탕, 꽃등심
-토치(033)372-7266
민물매운탕 소머리국밥 갈비탕
-두메산골(033)372-4777 토종꽃닭, 한방백숙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히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틀면) 8cm]



주문은 현물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